

‘취업보다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 활용하세요

청년·장년층·여성·장애인 대상 ■올해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 사업

봄철 모집 창업지원사업 다채

기술개발·홍보 등 상담·지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창업에 앞서 가장 큰 난관은 사업경험과 창업자금 부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자금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

우선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2~3월 중 모집예정)은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 활용과 성공노하우 전수, 상호협력 비즈니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인 이상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총 85개 내외 창업자를 선발해 76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창업 전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컨설팅, 사업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비용 등이다. 선도벤처의 직접투자자 및 구매·아웃소싱, 투자유치, 해외마케팅 등 협력 비즈니스 연계도 지원한다. 2~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마트벤처캠퍼스’(2~3월 중 모집예정)는 유망지식서비스(SW·콘텐츠·융합)분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화 자금부터 성장프로그램까지 초기 창업 전단계를 집중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기 창업자(만 39세 이하)로, 지원예산과 규모는 각각 124억원과 150개(후속지원 포함)다.

사업화 자금 평균 5000만원,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70%)과 창업자 맞춤형 교육 및 전



문가 멘토링을 지원한다. 여기에 판로확대, 마케팅, 협업,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소비자반응조사, 투자유치, 마케팅 등도 병행한다.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퇴직 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매칭한 세대융합형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집중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3월15일 모집마감)은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120개를 대상으로, 127억8000만원을 지원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40세 이상 중·장년층 경력 10년이상 숙련자만 지원할 수 있다.

사업화 지원금 평균 최대 1억원원을 비롯해 장년인재 서포터즈 연계, 세대융합 팀빌딩

을 위한 매칭 프로그램, 사업화 공간(사무실) 및 인프라, 맞춤형 멘토링 및 교육, 후속지원 등을 지원해준다.

위 사업들에 대한 정보나 접수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할 수 있다.

◇여성과 장애인 창업자 대상 지원사업= 여성과 장애인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들도 준비돼 있다.

‘대한여성벤처협회에서 주관하는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사업화’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총 6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외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비즈플랜캠프, 전문창업교육 및 선배CEO 밀착코칭, 사업화 과제 해결(최대 500만원) 등도 지원한다. 한국여성벤처협회 홈페이지(www.kovwa.or

kr)에서 3월 중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지원’과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을 진행한다.

다음달 초 모집예정인 시제품제작지원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총 5억5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비용을 최대 2500만원 이내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4월 모집하는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은 올해 신설된 지원제도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 희망자가 대상이다. 지원예산 규모는 12억원으로, 창업사업자에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모집공고나 정보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조계현 소장의

창업 이야기



외식업 트렌드 변화와 적용

우리가 사회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빠른 분야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 패션, 뷰티, IT를 꼽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외식분야 역시 상당히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변화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외식 창업아이템은 점포면적, 상품가격, 양, 재료, 입점 위치, 서비스 방법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외식창업 아이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고 고객은 그러한 시도에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변화에 동참하려 한다.

특히 학생층과 20~30대 여성층이 그 변화에 가장 빨리 반응하고 적용하는 고객층임을 참고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나 메뉴 구성, 운영전략들을 계획했다면 학생층과 젊은 여성층들을 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은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외식업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수십 년을 유명 맛집으로 장수해온 유서 깊은 매장에서 대표 메뉴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저역시, 천연조미료 사용, 힐링, 웰빙 트렌드에 맞는 메뉴를 추가로 선보이기도 한다. 또한, 전통적인 점포의 틀을 벗어나 보다 고객 친화적인 형태로 인테리어를 변화시켜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나 했던 생일 이벤트나 행사를 한식 점포에서도 적용해 좀 더 고객 친화적으로 변화하려는 시도도 과감하게 하기도 한다.

외식업은 생산과 소비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는 만큼 고객이 원치 않아도 보여 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과정이 점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음식의 제공과 분위기,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최근 변화하는 트렌드를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매장과 트렌드에 둔감한 매장의 차이는 곧바로 고객의 증감이나 매출로 직결되어 매장 경쟁력에 트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준다.

맛만 좋으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몰려든다는 안일한 생각은 이전 옛것이 되어 버린 만큼 현재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서 영업 중인 매장이더라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외식 트렌드나 고객들의 성향을 무시하고 변화에 민감한 경영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고객들은 트렌드를 반영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트렌드의 변화는 외식업종의 고유한 특징이나 영역에도 영향을 줘 한식전문점에서 레스토랑급 인테리어를 하고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한식과 절충한 퓨전메뉴를 제공하는 모습도 이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수시로 변화는 외식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외식사업자는 성공하기 힘들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지나친 ‘미투’ 전략의 실행은 자칫 점포의 독창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점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주는 지혜 역시 필요하다. 그렇기에 가장 이상적인 트렌드 반영방식은 독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당 매장에 어울리는 최신 트렌드의 적용이 아닐까 싶다.

(소상공인 창업전략연구소장)

6개 부처 출자 1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6180억원의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매칭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2일 이런 내용을 공고하고 운용사 모집 등 벤처펀드 조성 절차를 시작해 오는 7월 말 펀드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태펀드 6180억원 중 중기부 출자 금액은 4350억원이고 나머지 183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특허청·환경부·고용노동부 5개 부처가 출자했다. 중기부의 주요 출자분야는 창업초기펀드(1680억원), 혁신성장펀드(1120억

원), 민간재난펀드(800억원) 등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을 갖춘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펀드(500억원)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모태펀드 6180억원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투자가 더해져 1조1659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문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가 창업·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300억 규모 보건산업 창업펀드 보건부, 운용사 공모-8월 시작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건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운용사 공모에 들어갔다. 펀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 초기기업 투자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는 펀드에 180억원을 출자하고 최소 120억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해 총 3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한다. 펀드 투자는 운용사 공모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산자부 엄선 일자리 한눈에 26일 김대중센터서 박람회

오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청년희망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자동차, 기계, 전자, 소비재, 서비스, 건설 등 37개 업종의 317개 기업이 참여한다. 대기업 38개, 중소·중견기업 240개, 에너지 기업 21개, 공공기관 18개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기업군과 업종을 모아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여러 기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귀국한 상무관들이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맞춤형 취업 상담을 한다. /박기용기자 pboxer@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경매물건 (추천)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30억2천4백 최저:16억9천

*남구 주월동 (근린주택) 감정:4억5천3백 최저:4억5천3백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감정:4억8천7백 최저:3억4천1백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2월초 개강)

-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개조 + 실전경매+실전투자
- 3) 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 ① 광산구 용동 (공장) 감정가 9억6천7백 → 최저가6억7천 7백 토지:500평 건물:445평
- ② 서구 풍암동 중흥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2백
- ③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백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추)대신경매

- 1) 남구 노대동(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
-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 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최저 16억9천
-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 9억 3천 → 최저4억 2천
- 5)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 6) 남구 주월동 (근린주택) 감정 4억5천 3백 → 최저 4억5천3백
- 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13억1천9백 → 최저13억1천6백
-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4천7백 → 최저가 3억6백
- 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숙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
- 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
- 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439평 감정:32억6천 → 최저:14억6천

A.P.T·주택·공장·토지 (기타)

-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3천
- ③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 ④ 광산구 수원동 대방노블아파트 (54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 ⑤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⑥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⑦ 서구 벽진동 (토지) 222평 감정 8천6백 → 최저 8천6백
- ⑧ 광산구 오선동 (공장) 감정 18억3천6백 → 최저 12억8천5백
- ⑨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 2억6천7백 → 최저1억 8천7백
- ⑩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⑪ 광산구 박촌동 (토지) 감정 1억9천 → 최저5천5백

010-6670-9800 062)382-5500